

일본어 잔재 정리

»» 팩트체크

코스콤에 대한 사실과 다른 뉴스나 정보를 바로 잡아 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에는 벌써 해방을 맞은지 75년이 지나 광복 75주년을 맞았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같은 날인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일본의 간섭을 받기 시작한 대한 제국은 1910년,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강제노동, 창씨 개명, 한글 교육 금지 등 갖은 고초를 겪으며 35년을 일본 식민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젠 벌써 해방을 맞은지 7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의 한글 말살정책에 의해 지금도 일본어 잔재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복절 시기에 즈음하여 태극기를 게양하자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게양이라는 용어도 일본어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근 한글날에도 일본어 잔재는 여전했으며, 우리가 많이 쓰는 잉꼬 부부의 잉꼬는 원앙의 일본식 표기이며, 우리가 흔히 시켜먹는 중국음식인 짬뽕 또한 한글은 초마면 입니다.



일본어 잔재 사례

그럼 생활 속 일본어의 바른 우리말을 좀 더 살펴볼까요?

금일은 오늘, 기라성은 반짝이는 별, OO당은 빵집 또는 제과점, 구라는 거짓말, 애매하다는 모호하다, 기스는 상처, 간지는 멋으로, 다데기는 다진 양념, 뽕국은 들통, 땡강은 투정, 망년회는 송년회, 쇼부는 승부, 고참은 선배 또는 선임, 가봉은 시침바느질, 감사는 고마움, 견출지는 차임표, 계단은 층계 또는 층층대 등으로 바뀌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또한, 행정 용어나 법률 용어, 일반 서식에 쓰이는 용어도 거의 일본식 한자라고 해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공람은 돌려봄, 감봉은 봉급깎기, 공시는 알림, 과세는 세금, 건폐율은 대지건물비율, 하청은 아래도

급, 가처분은 임시 처분, 각하는 기각, 거래선은 거래처, 견습은 수습으로 등으로 풀어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도 일본어 잔재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구배는 기울기, 시담은 협의, 공구리는 콘크리트, 아시바는 발판 등으로 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특히 야구 용어에도 일본식 한자어가 많습니다. 도루나 병살, 사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SNS, 연합뉴스